

사순 제3주일 복음 나누기

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

(요한 4,7-15)

1. 성호경
 2. 시작성가(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)
 3. 새로 온 사람 소개
 4. 준비기도<각자 자유롭게>
 5. 독서 (성경읽기) - 요한 4,7-15
- +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“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.”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

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.

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?”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.

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. “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‘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.’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,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.”

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선생님,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,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?”

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?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.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.”

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. “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.

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.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.”

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선생님,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,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”

※ 세밀한 독서 나눔

-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.(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)
- 모두 들은 후,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,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.
-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.
-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.

※ 묵상나누기

(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)

❖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
❖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

-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.

< 성경해설 >

야곱의 우물가에 마주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낮설음에서 시작하여 파격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.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, 그것도 남자와 여자라는 틀과 선이 무너지고, 천 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실 물을 찾던 예수님께 오히려 생명의 물을 청하는 반전으로 이어집니다.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청하는 사마리아 여인, 그녀는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을 청했다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, 쉽게 납득 되지 않는 자기 삶의 갈증을 예수님을 통해 해소하려 한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. 이처럼 우리 삶의 틀과 선을 깨뜨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, 우리 삶의 갈증을 해소할 생명의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움켜쥐고 놓지 않는, 절대적이라 여기고 살던 우리 삶의 많은 기준들이 허물어지면 하느님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,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갈증들을 하나 둘씩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.

6. 안건토의와 공지사향 전달

7. 마침기도

주님,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. 아멘.

8. 마침성가(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)